

재미있는 교양영어 수업을 위한 자막번역 교육 활용방안

최진실
(계명대)

1. 서론

영상을 활용하는 외국어 수업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측면에서도 순기능이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동기 부여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에서 상당부분 입증된 바 있다(Koolstra and Beentjes 1999; 유영아 2000; 김영서 2003; 염문식, 강용구 2007).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내 영어교육학계에서는 2000년 영상영어 교육학회(STEM Journal)를 출범시켜 영상을 활용한 영어 교육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외국어 연구기관인 미국외국어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에서도 미국 내 외국어 교육에서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김민영 2018: 307).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영상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일부로, 자막번역을 교양영어 수업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외 번역학계에서는 영상을 번역교육 매체로 인식하여 자막번역, 더빙 등 학습자 번역능력의 향상

및 제고에 관심을 두고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번역 교육의 현실은 번역능력과 교육에 특화시킨 전공 수업이 일부 전공학과나 대학,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교양영어, 실용영어 등 언어교육의 측면에서 번역 교육의 확장은 전공, 대학의 편제(2년제, 4년제 등)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언어교육에서 자막번역을 포함한 번역활동이 학습자의 언어능력 향상과 학습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는 국내 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Stibbard 1994; Carreres and Noriega-Sánchez 2011; 최진실, 박기성, 전지현 2011; Calis and Dikilitas 2012). 이는 종래에 번역이 문법 위주의 구태의연한 언어 교수법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상반되는 것으로 외국어 교육에서 번역이 학습자에게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교수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McLoughlin and Lertola 2014).

이에 본고는 보다 재미있는 영어 학습을 위해서 교양영어 수업에서 자막번역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수업 사례를 토대로 교수, 학습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내 영상번역 또는 자막번역에 관한 연구는 해당 기술이 도입된 시점부터 온라인 매체가 다각화된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국내외 연구동향을 지면의 제약은 고려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주로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 스크린이라는 형식적 제약을 고려한 자막번역의 형식적, 의미적 특성에 대한 고찰(Gottlieb 1994; 윤후남 2010; 최소영 2012),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아웃렛의 등장으로 인한 팬자막의 성장과 특성에 관한 고찰(김가희, 최릉우 2015; 이지민 2015), 자막과 더빙 번역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Cho 2014; Perego, Missier, and Bottiroli 2015)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반면 디아즈 신타스(Díaz Cintas)와 오레로(Orero)(2003: 371)가 자막번역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고 주장했는데 10년도 지난 지금도 다양한 교육적 상황을 반영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다 교육적 입장에서 접근한 몇 가지 연구사례를 살펴보자면 외국어 학습현장에서 자막번역을 도입한 사례(McLoughlin and Lertola 2014),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자막번역을 도입한 사례(Dorado and Orero 2008), 영상번역 교육도구로서 코퍼스 설계에 관한 연구(신진원, 박기성 2015), TED 영상번역을 번역교육에 활용한 연구(안미영 2012)가 있는데, 여전히 국내의 다양한 학습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교육 사례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교양영어 수업에서 자막번역 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자막을 활용한 연구, 자막번역 교육 방법 및 연구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교수 학습 과정의 설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4장에서는 자막번역을 실제 수업에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습자의 번역활동에 대한 설문, 강의평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번역학습과 경험에 대한 사례를 공유한다. 5장에서 본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언어교육적 측면에서 자막활용에 관한 연구

일부 연구에서는 외국어 수업에서 자막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자의 언어능력 향상 및 흥미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Goldman 1993; Koolstra and Beentjes 1999). 자막은 언어 내 자막(intralingual subtitles)과 언어 간 자막(interlingual subtitles)으로 나뉘는데, 언어 내 자막은 청각 장애우를 위한 것으로 출발하여 최근 다언어적 측면에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ex. Szarkowska, Żbikowska, and Krejtz 2013), 일반 외국어 학습에서도 언어 내 자막을 활용한 사례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Kothari, Takeda, Joshi, and Pandey 2002; 윤상돈, 안덕규 2012).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영어 자막으로 시청하는 것이 언어 내 자막 활용에 해당된다. 한편 언어 간 자막은 음성언어와 제시된 자막언어가 다른 경우를 일컫는데, 영어권 영화를 시청할 때 한국어 자막을 보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학습자의 언어능력 향상에 어떤 자막(언어 내 자막/언어 간 자막)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데¹⁾, 이는 연구의 환경과 해당 학습자들의 모국어, 언

1) 다난(Danan)(2004)에서는 언어 내 자막이 외국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쿨스트라(Koolstra)와 빈에스(Beentjes)(1999)에서는 언어 간 자막이 외국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상돈, 안덕규

구언어에 대한 친숙도, 학습자들의 언어능력 등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분명한 것은 국내외의 연구에서 자막을 활용한 외국어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2.2 자막번역 교육 방법과 연구 방법

자막번역교육을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교수법은 자막번역 소프트웨어가 활용된 이후로 계속 이루어져 왔으나 초기에는 이미 만들어진 자막이나 더빙을 제공하면서 교육했던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경우 학습자들이 자막, 더빙 등 실제 번역활동을 수행하는, 과제 중심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McLoughlin 2019: 483). 반더플랭크(Vanderplank)(1988: 276)에서 지적한대로 자막이 있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학습자의 수용 능력(receptive skill)에 국한한 것으로 학습자의 산출 능력(production skill)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에서 과제 중심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가 활발하다(Willis and Willis 2007, 현대덕 2014)²⁾. 네브스(Neves)(2004)는 자막번역활동이 학습자의 수용 능력과 산출 능력, 번역 능력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김진화(2010)의 연구에서도 자막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학습자의 억양, 강세 등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 향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최진실, 박기성, 전지현(2011)에서는 자막번역 과제를 도입한 수업이 학습자의 어휘 및 쓰기 산출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는 학습자의 언어 성취도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연구 흐름에 부합한다(McLoughlin 2019: 488). 데이터 중심 연

(2012)에서는 언어 내 자막, 언어 간 자막 모두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과제’는 학자들마다 정의가 상이하지만 현대덕(2014: 252)에 따르면, 과제는 의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고, 목표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번역 활동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과제라는 의미는 수업 내, 수업 외에서 학습자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실제 수행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구는 사전, 사후 테스트를 수반하거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자막번역을 포함한 영상번역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레톨라(Lertola)(2012)에서 이탈리아어를 학습하는 외국어 교육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자막이 있는 영상을 시청한 후와 외국어-모국어 자막번역 연습 후의 어휘력 향상을 실험한 연구가 그 예이다.

반면 질적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는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자막번역활동을 통합한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자막번역 경험을 설문이나 인터뷰 피드백을 통해서 그 효과성 또는 의의를 보고하는 연구가 많다. 맥러플린과 레톨라(2014)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간 아일랜드의 한 대학의 자막교육사례를 중심으로 학부생 3학년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 자막번역을 커리큘럼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24주간의 자막번역 교육 모듈을 통해서 학습자의 반응과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도라도(Dorado)와 오레로(2008)에서는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영상번역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국내 연구사례로 김민영(2018)에서는 맥러플린과 레톨라(2014)처럼 자막번역 활동을 포함한 언어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학습자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목표로 미국 소재 한 대학의 한국어 수업에서 5주간 ‘영국남자’ 유튜브 자막번역을 활용한 교육 사례를 소개한다. 해당 수업에서는 먼저 교수자가 해당 영상 한국어-영어 자막의 문법적 등가, 화용적 등가, 텍스트적 등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학습자는 본 활동에서 자막 고쳐 넣기 연습을 통해서 이전에 본 영상을 다른 자막으로 바꾸는 번역활동을 실행하였다. 수업 후 한국어 학습자들은 영상과 자막번역을 활용한 수업이 재미있었으며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학습자의 반응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을 병행한 연구로 최진실, 박기성, 전지현(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부산 소재 한 대학의 어학전공 영어도구과목에서 6주간에 걸쳐 자막번역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자막 없이 학습자에게 영상을 시청하고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하고, 조별로 의견을 교환한 후, 교수자가 해당 영화에 나오는 어휘, 구의 의미와 통사구조를 설명한다. 그 후 글자수, 지면제약 등과 같은 자막번역의 특성을 교수자가 설명하고, 학습자들은 조별로 영화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자막번역을 실시한다. 학습자들은 조별 번역 발표를 들은 후 동료 평가를 자유롭게 진행한다.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비교

한 결과 자막번역을 활용한 수업 이후 학습자의 산출능력 향상이 나타났으며 설문과 인터뷰에서 학습자의 자막번역에 대한 관심 및 호응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영(2018)과 최진실, 박기성, 전지현(2011)의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영화 내용과 언어적 특성을 설명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다소 비중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최근 외국어 학습에서 자막을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어떤 자막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 언어능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는 실제 과제 중심의 자막번역 활동이 학습자의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자막번역교육을 언어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의 사례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Díaz Cintas and Orero 2003: 371). 자막번역 교육을 실제 외국어 수업에서 도입하여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 계획(lesson plan)을 제안한 맥러플린과 레톨라(2014)의 연구는 아일랜드의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들의 24주간 자막번역 코스 모듈을 16주간 국내의 교양영어 강좌내로 통째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본고는 외국어 수업 중 과제활동으로 자막번역을 포함한 김민영(2018)과 최진실, 박기성, 전지현(2011)의 연구와 본 대학의 교육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학습기간을 4주로 설정하고 교수 학습 과정의 설계, 실행, 마무리를 논의한다.

3. 교수 학습 과정의 설계

교수-학습과정 설계는 서혁(2006)과 김민영(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 하되, 특히 자막번역을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 김민영(2018: 312)의 연구에 준하여 준비단계, 구체화단계,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이들의 논의는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역동적 수업의 형태를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3.1 교수 학습계획의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는 학습 목표 설정 및 변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제 활동과 관련된 학습목표는 ‘언어능력과 문화적 양상을 통합하는 활발한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미있는’ 자막번역을 통한 학습자의 학습동기 향상이었다. 변인분석으로 교수자, 학습자, 교수 학습 환경 변인을 분석하였다.

3.1.1 학습 목표 설정

본 강좌는 해당 대학의 공통교양 강좌로 독해 및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교재와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교재가 정해져 있고, 학습목표 또한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통 교양과목이라는 특성상 표준 강의계획서가 권고되고 있지만 교수자에 따라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등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자율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공통의 학습목표 아래, 좀 더 학습자 주도적이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막번역을 활용한 수업을 전체 16주 중 4주간 편성하여 해당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 내용은 첫째, 영어권 영화 시청을 통해 일상생활 영어의 청취 학습, 둘째, 자막 번역 연습을 통해 영어 원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학습하고 이를 적합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제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보다 역동적이고 즐길 수 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학습자에게 제공된 강의 계획서의 일부이다.

〈표 1〉 강의계획서

◎교육목표
본 강좌의 목표는 독해 능력과 작문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토의를 통해 학생들의 어휘와 문법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자는 또한 본 강좌가 언어 능력과 문화적 양상을 통합하는 활발한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한다.
◎수업진행
본 강좌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열린 강의를 지향한다. 교수자에 의해 강제가 진행되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인 학습 스타일을 고안하는 등 그들의 능동적인 참여의 기

회가 주어진다.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휘 예습과 다양한 활동(짝 혹은 소그룹)이 주어진다.
◎교과목 활용
영자 신문, 잡지 기사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자료 파일 영화 자막 번역 활동 및 발표
◎학습평가
-출석 10%, 정기고사 30%, 수시고사 30%, 과제 20%, 토익성적 10% -과제점수에는 학기말 조별 발표(영상번역)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3.1.2 변인분석

교수자는 번역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양영어를 비롯한 실용영어 강좌, 번역이론 및 실무 강의 경험이 9년 이상이며, (영상)자막번역을 영어교육의 도구과목으로서 활용하는 수업 방식을 매학기 도입하여, 2014년부터 5년간 지속해오고 있다. 인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사회, 공학, 음악, 체육, 간호, 의학, 자연과학 등 타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영어 수업에서 자막번역을 비롯한 영상번역을 활용하여 학습자 주도, 과제 중심의 ‘재미있고’ 역동적인 영어 수업 방식 고안 및 정착화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학습자는 해당 대학의 자연과학, 간호, 사회 전공 교양영어 수강생 106명이다. 나이대별로 20살이 71.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1살 15.1%, 19살 및 22살이 각각 5.7%, 그 외 23살, 26살이 각각 1명씩 나타나 각각 0.9%를 차지하였다. 성비는 남성 35.8%, 여성 64.2%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의 영어 성적이 자막번역 활동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어 성적으로서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하기 용이한 토익성적을 살펴본 결과, 토익시험에 응시해보지 않은 학습자 4명을 제외하고, 301-400점대에 26.4%, 401-500점대에 24.5%로 분포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외 201-300점대 13.2%, 501-600점대 12.3%, 601-700점대 10.4%로 나타났다(비율이 한자리수 이하인 경우 생략함). 이들의 평소 영화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기 위해 영화관 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한 달에 1회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3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한 달에 2회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자 21.7%, 3달 동안 1회 17%, 2달 동안 1회 16%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관 방문

외 핸드폰, 컴퓨터 등으로 영화 시청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 달에 2회 이상 시청한다는 응답자 26.4%, 2달 동안 1회 이상 24.5%, 한 달 동안 1회 이상 20.8%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영화관 방문 빈도가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었다. 영어권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헐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외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8.3%, 그렇다 48.1%로 전체 76.4%가 외화 영화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학습자는 토익성적은 301점-500점 사이, 영화관 방문이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2회 이상 디바이스로 영화를 시청하며 외화 영화를 좋아하는 20살 여성 대학생이 대표적이다.

교수 학습 환경의 경우, 본 연구가 진행된 대학은 지방 광역시 소재로,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영어를 사용한다거나 영미권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캠퍼스 내에서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터네셔널 카페(영어만 사용가능함) 활용 등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 해당 학습자들은 1학년 1학기, 2학기 각각 한국인 교수자, 원어민 교수자의 교양영어 수업을 필수로 수강하도록 되어 있고, 교실환경은 멀티미디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영어 관련 수업에서도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3.2 교수·학습계획의 구체화단계

3.2.1 수업 모형의 설정 및 내용 구성

자막번역을 활용한 수업 모형은 도입, 전개, 정리와 같은 전통적인 수업의 모형에 따라(현태덕 2014: 254), 시작활동, 본활동, 마무리 활동 3단계로 구성하였다. 본 학습은 학습자의 조별활동을 위주로 진행되었기에 김민영(2018), 최진실, 박기성, 전지현(2011)의 연구와 달리, 교수자의 역할은 최소화하여 학습자의 과제 중심 학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수업모형은 다음 <표 2> 같다.

<표 2> 수업모형

1단계	시작활동	학습목표 및 수업방식의 이해 자막 번역의 형식적 제약 및 특성 이해 조별 토론을 통한 영화 선정
2단계	본활동	조별 선정된 영화를 자막이 있는 채로 전체 학습자 시청 및 내용 이해 조별 선정된 영화 내용 및 영어 원문 분석(영화 스크립트 활용) 조별 공식 자막의 특성(장단점 파악) 및 자신들만의 번역전략 설정 자막번역 자막편집기 등을 활용한 자막 편집 조별 자막 번역 발표
3단계	마무리	종합정리: 조별 자막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평가 및 설문

시작활동에서는 자막번역 학습의 목표 및 수업 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별 과제를 소개하고, 자막 번역의 형식적 제약 및 특성을 학습한다. 조별로 자막번역을 위한 영화를 선정한다. 본활동에서는 각 조에서 선정한 영화의 일부(15분)를 한글 자막이 있는 채로 전체 시청하여 모든 학습자들이 해당 영화의 공식 자막 내용 및 특성을 파악하게 하고, 각 조별로 선정된 영화 내용과 영어 원문을 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며, 자신들만의 번역전략을 설정한다. 이후 자막번역을 실시하여 자막편집기 등을 활용한 자막편집을 실시하고, 조별로 발표한다. 마무리활동에서는 조별 자막 번역 발표를 들은 후 해당 번역에 대한 흥미도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며 교수자는 이들의 발표를 평가하고 학습자의 자막번역 경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16주 수업 내에서 본 연구는 12주차부터 15주차까지 4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수업은 1주일에 2번 실시되며, 75분씩 수업한다. 주차별 수업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차별 수업내용

12주차	영상(자막)번역의 이해 및 자료 선정 및 영화 시청(한글자막 특성 파악)
13주차	수업내 & 수업외 조별활동 영화 공식 자막 특성 및 장단점 파악 후 번역 전략 수립 실제 번역
14주차	조별 과제 중간 점검 및 진행 -번역 전략 수립과 적용 방식 교수자 확인 -자막번역 편집(조별로 자막편집기 기능과 방식, 장단점 정보 공유)
15주차	자막번역 조별 발표 및 평가

3.2.2 자료 선정

과제 중심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제를 선정할 것인가이다(현태덕 2014). 본 연구는 자막번역을 과제로 선정하였기에 영화 선정은 학습자의 언어능력, 흥미도에 따라 학습동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중요한 사안이었다(김남경 2015). 본 연구 실행 이전 2018년까지 연구자가 진행한 수업에서는 연구자가 영화 등급과 장르를 고려하여 선정한 동일한 영화의 일부를 조별로 임의로 15분 분량을 선택 및 번역하도록 했는데 모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숙제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별로 학습자들이 원하는 영화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3.3 교수 학습의 실행단계

실행단계에서는 앞서 구체화한 내용을 통합하여 실행한다. 본 강좌는 교수자와 학습자, 영화, 주교재/부교재를 중심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막번역활동을 실시하기 전인 1주부터 11주까지 학습자는 주로 교재를 활용한 독해, 쓰기,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연구는 16주차 기말고사 직전까지 4주간 실시하였다. 실제 수업진행은 다음 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 자막번역을 활용한 교양영어 수업의 실제

자막번역을 활용한 교양영어 수업은 2019년 1학기 지방 광역시 소재 한 대학에서 신입생 106명, 4개의 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4.1 시작활동

시작활동에서는 본 과제의 학습목표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후, 자막번역의 형식적 제약인 글자수 제한, 구어 스타일의 가독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후,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조별로 15세 관람가 이하 영화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유도하였다. 15세 관람가 이하로 한정된 것은 비록 해당 학습자들이 성인이지만 교실 상에서 선정적, 자극적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습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조별로 원하는 영화를 선정한 후, 15분 분량의 원하는 부분을 선별하여 번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번역 작업 개시 전 선정한 영화를 수업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함께 시청하도록 하면서 DVD 혹은 Netflix 상의 공식 자막을 다른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과제는 과제 점수로 수업 평가에 포함되므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북돋울 수 있는 활동이라는 과제 선정 목표에 따라 평가 지침이 재미있는 자막 번역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었다. 재미있는 자막번역이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지만 동료들의 발표 후 반응(자유로운 토론)을 보고 재미있는 번역인지 판단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 조별 토론을 통해 적합한 영화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4.2 본활동: 조별 자막번역과 발표

약 3주간의 수업 내 활동, 수업 외 활동을 마치고, 4주차에는 조별로 자막번역을 완성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표는 4개의 분반 학생들이 조별로 선정한 영화 정보이다.

<표 4> 조별과제 선정 영화 정보

분반	조	선정영화	등급
A 보건	1	블랙팬서	12세관람가
	2	나홀로집에2	전체관람가
	3	해리포터	전체관람가
	4	스파이더맨 홈커밍	12세관람가
	5	닥터스트레인지	12세관람가
	6	겨울왕국	전체관람가
B 간호	1	마다가스카	전체관람가
	2	찰리와 초콜릿공장	전체관람가
	3	포레스트검프	12세관람가
	4	인사이드아웃	전체관람가
	5	주토피아	전체관람가
	6	스파이더맨 홈커밍	12세관람가
C 자연 과학	1	주토피아	전체관람가
	2	모아나	전체관람가
	3	도리를 찾아서	전체관람가
	4	인사이드아웃	전체관람가
	5	겨울왕국	전체관람가
D 사회	1	토이스토리	전체관람가
	2	니모를 찾아서	전체관람가
	3	주토피아	전체관람가
	4	쿵푸팬더	전체관람가
	5	겨울왕국	전체관람가

본 연구의 학습자의 자막번역에서는 이상빈(2017: 222)에서 지적한대로 상당부분 팬서브(fansub)의 특성이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자막번역에서 ‘존맛탱’과 같은 비속어 및 은어 사용에도 매우 자유로운 양상을 보였는데 비속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씨방’, ‘쟈’와 같이 비슷한 발음의 단어로 대체하여 유머러스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엄근지’(엄격근엄진지)와 같은 축어,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캐릭터의 감정묘사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드러내는 개입자(interventionist)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자막색깔이나 위치를 자유롭게 바꾸고, 자막이 전체 화면의 1/2가량 차지하는 번역도 일삼았다. 특히 A분반의 경우 4개의 조에서 자막을 영상 상단에 위치시켰는데 그 이유를 발표 후 물어본 결과, 교실 내에서 자막 하단보다는 상단에 자막이 더 잘 보인다고 이유를

답하였다. 다음 <그림 1>은 특수문자와 자막색깔을 다양하게 사용한 학습자 번역의 예이다.



<그림 1> 특수문자와 자막색깔을 다양하게 사용한 예

상기 <그림 1>의 예는 C분반의 <겨울왕국> 자막번역으로 해당 조는 자막의 위치를 화면의 중간, 오른쪽 등 자유자재로 바꾸고 자막색깔로 파란색과 하얀색을 섞어서 사용했다. 또한 ‘사랑’을 ‘srroo’으로 마치 상형문자처럼 표현했는데, 그 번역이유를 교수자가 물어보자 ‘엘사를 중(학교) 2(학년)병 캐릭터로 묘사하고자 보다 감성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영화의 인물 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은 다른 조들의 번역에서도 나타났는데, 그 예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북한 사투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인물의 성격을 나름의 해석으로 표현하는 양상이 있었다.

또한 맥러플린(2019: 483)에서 지적한대로 본 연구의 학습자들도 자막뿐만 아니라 오디오 기술(audio description)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들의 감정을 나레이션으로 표현하거나 효과음을 덧입히는 매우 활발한 개입 양상이 드러났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번역전략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과제 제시 전 주었던 ‘재미있는 번역’을 하라는 지침과 상당부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 마무리 단계의 설문에서 해당 요소와 관련된 설문을 추가하였다.

4.3 마무리

학습자는 조별 발표를 들은 후, 자유롭게 발표 내용에 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속어나 채팅언어 사용과 같은 특정 번역 방식에 대해서 ‘재밌

다, ‘신선하다’ 등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막편집이 독특한 경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에 물어보기도 하였다. 학습자는 재미있는 번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도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수자는 이들의 발표 후 반응과 번역의 자연스러움, 재미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그 후 학습자는 자신의 번역경험에 대한 설문에 응하였다. 학습자들의 설문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내용은 크게 번역이 영화의 재미 또는 만족도에 주는 영향, 재미있는 자막번역을 위한 영화 선정시 고려한 요소, 재미있는 번역의 특성, 재미있는 번역을 위해 허용되는 번역 특성, 자막 번역 활동의 선호도, 자막번역이 영어에 대한 흥미 진작에 도움이 되었는지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자.

4.3.1 해당 영화의 재미 또는 만족도에 대한 번역의 영향

본 연구의 학습자는 영화의 재미와 만족도, 영화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번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외화 영화 시청시 자막번역이 영화의 재미와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 전체 84%를 차지했고, 번역이 해당 영화 시청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 응답 비율도 79.%로 매우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막번역 교육의 의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영화의 상업적 흥행의 측면에서도 번역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해당영화의 재미 또는 만족도에 대한 번역의 영향

설문	반응	응답수	비율
외화 영화 시청시 (자막 또는 더빙) 번역이 해당 영화의 재미 또는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32	30.2
	그렇다	57	53.8
	보통이다	16	15.1
	그렇지 않다	1	0.9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번역이 해당 영화 시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까?	매우 그렇다	25	23.6
	그렇다	59	55.7
	보통이다	16	15.1
	그렇지 않다	4	3.8
	전혀 그렇지 않다	2	1.9

4.3.2 재미있는 자막 번역을 위해 영화 선정시 고려한 요소

본 연구의 학습자는 영화 선정시 영화내용과 장르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 고 응답하였고, 각각 53.8%, 31.1%의 비율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설문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화 선정시 고려한 요소 설문 결과 (복수응답 허용)

설문	반응	응답수	비율
재미있는 자막 번역 과제를 위해 영화 선정시 가장 고려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영화내용	57	53.8
	영화 관람 등급	7	6.6
	영화 장르(애니메이션, 액션, 로맨스 등)	33	31.1
	그 외	6	5.7
	영화내용, 장르	2	1.9
	관람등급, 장르	1	0.9
	전체	106	100

4.3.3 재미있는 번역, 만족도 높은 번역의 특성

본 연구의 학습자 번역은 상당부분 표준 자막번역 규범에서 벗어나는 팬서브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에, 해당 학습자들이 재미있는 번역, 만족도 높은 번역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복수 응답 허용), 캐릭터 설정에 맞는 번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6.4%), 캐릭터 설정과 원문과는 거리가 있더라도 한국 실정에 맞도록 각색한 번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다음(11.3%), 이 두 항목을 복수 응답한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17.9%). 또한 사투리 번역은 개별항목보다 캐릭터 설정과 함께 복수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습자들은 원문에 준하는 직역보다 영화의 캐릭터 설정, 한국 실정에 맞는 번역이 영화의 재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번역 전문가 양성에서도 일반 관객의 영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고할 만하다.

<표 7> 재미있는 번역, 만족도 높은 번역의 특성 설문 결과 (복수응답 허용)

설문	반응	응답수	비율
재미있는 번역, 만족도 높은 번역이란 어떤 것입니까?	캐릭터 설정에 맞는 번역	28	26.4
	원문에 가까운 번역	6	5.7
	원문과는 거리가 있더라도 한국 실정에 맞도록 각색한 번역	12	11.3
	사투리 번역	0	0
	은어 및 채팅 언어를 사용한 번역	2	1.9
	그 외	2	1.9
	캐릭터 설정, 원문	10	9.4
	캐릭터 설정, 한국실정	19	17.9
	캐릭터 설정, 사투리	2	1.9
	캐릭터 설정, 은어	4	3.8
	원문, 사투리	1	0.9
	원문, 그 외	1	0.9
	한국실정, 사투리	1	0.9
	한국실정, 은어	3	2.8
	사투리, 은어	2	1.9
	캐릭터 설정, 원문, 한국실정	1	0.9
	캐릭터 설정, 원문, 은어	1	0.9
	캐릭터 설정, 한국실정, 사투리	4	3.8
	캐릭터 설정, 한국실정, 은어	1	0.9
	캐릭터 설정, 한국실정, 그 외	1	0.9
	캐릭터 설정, 사투리, 은어	2	1.9
	캐릭터 설정, 원문, 한국실정, 은어	1	0.9
	캐릭터 설정, 한국실정, 사투리, 은어	2	1.9
전체		106	100

4.3.4 재미있는 번역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요소

그 다음 재미있는 번역을 위해서 어떤 요소를 허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 했다. 다음 <표 8>을 보자.

<표 8> 재미있는 번역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요소 설문 결과 (복수응답 허용)

설문	반응	응답수	비율
재미있는 번역을 위해서 다음 중 허용할 수 있는 번역은 어떤 것입니까?	비속어 번역	12	11.3
	은어 사용	7	6.6
	특수 문자 사용	5	4.7
	원문 스트립트에는 없으나 번역가가 추가하는 번역(예. 감성표현 등을 자막 처리)	4	3.8
	사투리 번역	4	3.8
	그 외	0	0
	비속어, 은어	17	16
	비속어, 특수문자	2	1.9
	비속어, 번역가 추가	3	2.8
	비속어, 사투리	7	6.6
	은어, 특수문자	1	0.9
	은어, 번역가의 추가	3	2.8
	은어, 사투리	10	9.4
	특수문자, 번역가의 추가	2	1.9
	번역가의 추가, 사투리	4	3.8
	비속어, 은어, 특수문자	2	1.9
	비속어, 은어, 번역가의 추가	2	1.9
	비속어, 은어, 사투리	5	4.7
	비속어, 특수문자, 사투리	2	1.9
	비속어, 번역가의 추가, 사투리	1	0.9
	은어, 특수문자, 사투리	1	0.9
	은어, 번역가의 추가, 사투리	3	2.8
	특수문자, 번역가의 추가, 사투리	3	2.8
비속어, 은어, 특수문자, 사투리	3	2.8	
비속어, 은어, 번역가의 추가, 사투리	1	0.9	
은어, 특수문자, 번역가의 추가, 사투리	2	1.9	
전체		106	100

학습자들은 조별 발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속어 번역, 은어 사용, 사투리 번역에 대한 용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수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약 70%), 학습자들은 비속어를 비롯한 표준 자막 규범에서 벗어난 다양한 요소를 허용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은 비전문가 자막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번역형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전문가 번역의 이러한 자유로운 번역 특성은 초창기 무지한 선택으로 인식되다가, 페레즈-

곤잘레즈(Pérez-González)(2007)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종의 나비효과를 내면서 최근 국내 공중파의 자막 사용경향에서도 규범에서 벗어난 자막사용이 발견되고, 영국 BBC의 공식자막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사용한 자막이 나타나는 등 일종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이상빈 2017: 223).

4.3.5 자막번역 활동과 영어에 대한 흥미

본 연구에서 자막번역 활동을 수행한 이후, 자막번역 활동과 영어에 대한 흥미를 설문한 결과, 자막번역 활동이 재밌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 74.6%, 자막번역 활동이 영어에 대한 흥미 진작에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9〉 자막번역 활동과 영어에 대한 흥미 설문 결과

설문	반응	응답수	비율
자막번역 활동이 재미있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15	14.2
	그렇다	64	60.4
	보통이다	23	21.7
	그렇지 않다	2	1.9
	전혀 그렇지 않다	2	1.9
자막번역 활동이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20	18.9
	그렇다	59	55.7
	보통이다	22	20.8
	그렇지 않다	2	1.9
	전혀 그렇지 않다	3	2.8

4.4 수업 후 피드백(강의평가 및 심층 인터뷰)

이러한 수업을 마치고, 해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자유문항)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먼저 강의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자막번역을 활용한 영어 수업방식에 대한 수강생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³⁾ <표 10>은 전체 자유문항에서 수업방식과 관련된 평가를 추린 것으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평가에서 수업방식과 영어에 대한 실력, 흥미도를 언급한 경우 해당 학습자의 평가를 모두 제시한다.

〈표 10〉 강의평가 자유문항 결과: 수업방식과 관련된 평가를 중심으로

A분반	번역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영화 번역하기, 본문 해석하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모둠활동의 어색함을 초반부터 익히게 해주어서 좋았다.
	영어라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강의였다.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는데,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발표와 조별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다른 수업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발표를 통해서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수업하시고 과제나 활동 모두 학생들 수준에 맞춰 진행해주셔서 좋았습니다.
B분반	영어수업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많은 흥미가 생겼다.
	학생들과 다함께 참여하는 수업위주여서 지루하지 않았다.
	교재 내용뿐만이 아닌 실생활의 표현 등도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고 수업 시간 중 여러 활동을 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য়ে 도와주셨다.
	영어라는 외국어를 한 과목으로 생각하지 즐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적극적으로 수강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수업만 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자주하면서 영어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여 좋았습니다.
C분반	수업을 조화롭게 위주로 하시는데 재밌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도 잘 해주시고 수업진행 방식도 좋았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교수님.
	영어를 싫어해서 듣기 힘들줄 알았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재밌게 수업을 해주셔서 만족스러운 강의였다.
	과제의 양도 적절했고 수업 내용도 알차고 좋았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화번역도 재미있었고 수업 진행자체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고 교수님 너무 재밌으세요. 수업 너무 편하고 스트레스 없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분반	수업 중 활동이 많아서 활발.
	영어로 대화하면서 일상속 영어회화를 늘릴 수 있었음
	교수님의 유학 경험을 통해 강의 동안 배우는 것이 많았다.
	영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식의 자료와 과제를 주셨는데 실제로 도움되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좋았고 매 시간 부담되지 않고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자막번역하는 과제는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수업 외 활동도 재미있다	
재미있는 학습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3) 해당 강의평가는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대학 전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학점 평가 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솔직한 의견을 개진했으리라 생각된다.

학습자들은 자막번역 경험을 ‘새롭고 신기한 경험’,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표현하거나, 자막번역 활동으로 인해 수업이 지루하지 않았다고 주로 평가했다. 또한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막번역 활동으로 영어에 흥미가 생겼다든지,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습자 인식과 언어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후 수업이 끝나고, 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설문과 평가에서 나오지 않은 학습자의 번역활동에 대한 어려움, 영화 선정 후기를 중심으로 질문하고, 자막번역 활동과 영어에 대한 흥미 상관성을 추가로 질문했다.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이후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실제 인터뷰 내용이다.

<영화 선정>

교수자: 영화 선정은 어떻게 했죠?

학습자1: 영화를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번역할게 마땅치 않았어요. 애니메이션을 선정하다 보니까...

교수자: 왜 애니메이션으로 한정했 건가요?

학습자1: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언어가 쉬운 것 같았어요.

학습자2: 서로 봤던 영화가 달라서 조별로 이견이 있었어요.

<번역에서의 어려운 점>

교수자: 번역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학습자1: 동영상 파일이랑 자막이랑 맞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학습자2: 남들보다 특별하게 하려고 했는데 부각이 잘 안된 것 같아서...

교수자: 남들보다 특별하게 하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학습자2: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요.

<자막번역 활동과 영어에 대한 흥미>

교수자: 자막번역 활동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 같나요?

학습자1: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번엔 영화를 들어볼까? 한번 해봤으니 이 정도는 들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듣기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학습자2: 옛날에 봤던 거 새롭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조별 발표를 보고, 또 번역된 것만 보다가 직접 하니 재밌었어요.

인터뷰 결과 영화 선정 시 의견조율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로 이미 봤던 영화를 선정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고, 선호하는 장르

나 영화가 달라서 그 조율이 어려웠던 듯하다. 이는 교수자가 수업계획 당시 학습자의 흥미와 선호도를 반영하고자, 일방적으로 영화를 지정하여 하는 번역활동을 지양하고자 한 결정이었는데, 학습자들도 개인과제가 아닌 만큼 서로의 의견 조율이 어려웠던 듯하다. 또한 영화 선정 시 언어 난이도를 고려하여 애니메이션을 골랐다는 응답으로 미뤄볼 때, 전체관람가 선정 비율이 높았던 것도 일부로 설명된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학생들의 정외적 여과장치를 낮추어 수업 효과를 높이는 결과가 있다는 점(윤상돈, 안덕규 2012: 78), 애니메이션 영화에 주로 동물이나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 영어를 학습할 때 무의식적으로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김영덕 2005)는 점이 본 연구 학습자의 긍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 같다. 번역에서 어려웠던 점으로 학습자는 자막과 영상 싱크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보고했고,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고백해 본 수업의 평가 일부로 해당 과제를 진행한 것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었던 듯하다. 마지막으로 자막번역 후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는 질문에서 학습자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듣기 영역에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 재미있었다고 응답해 네브스(2004), 김진화(2010)의 연구 결과에 부합하였다.

이러한 설문 및 평가, 인터뷰 결과는 자막번역활동이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는 김민영(2018), 최진실, 박기성, 전지현(2011)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 4주라는 다소 짧은 학습기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기에 외국어 학습에서 자막번역 교육을 포괄하는 교육방법론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여전히 부족한 하나의 자막번역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자 국내 대학의 교양영어에서 자막번역 교육을 커리큘럼 내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수업사례를 토대로 교수, 학습 방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수업은 연구자가 지난 5년간 교양영어 수업에서 도입해온 방식으로 학습자의 주도로 보다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개발,

고착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 전체 16주 과정에서 4주간 자막번역활동을 영어 학습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연구한 결과, 4장에서 보듯이 학습자의 만족도는 설문, 강의평가, 인터뷰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가 해당 번역과제 이후 영어에 대한 흥미 향상에 긍정적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74.6%, 자막번역이 재밌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74.6%로 자막번역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학습자의 학습동기 향상과 흥미 진작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나타났다. 강의평가와 인터뷰 내용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상황의 교양영어 학습현장에서도 전공과 상관없이 자막번역 활동을 커리큘럼 내로 포괄하는 필요성이 학습자 태도에서 입증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용영어 교육의 측면에서 다양한 학습현장에서 참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 번역에서 비속어, 은어, 특수문자 사용, 자유로운 자막 색깔, 형태, 배치, 사투리 사용 등 표준 자막번역 규범에서 벗어나는 팬서브의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인식도 설문 결과 용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번역 특성적으로 비전문가번역과 전문가번역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최근의 추세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상업 번역에서도 반드시 고려할 만한 부분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습자 번역에서 오디오 기술, 음향효과 추가 등 개입자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는 향후 자막번역 뿐만 아니라 더빙, 비디오 클립 삽입 등 다양한 영상 번역적 요소를 포괄하는 교육, 또는 학습자 번역 특성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켜주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번역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는 방식을 수업에 도입하여 보다 역동적인 학습현장의 교육 사례를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김가희, 최릉우 (2015) 「중국 팬서브, 공식자막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가?-외화 <어벤저스>의 번역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61:

251-274.

김남경 (2015) 「한국어 영상자료를 이용한 언어·문화 교수 방안」, 『민족연구』 64: 4-23.

김민영 (2018) 「유튜브 자막 번역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미국 Mississippi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307-328.

김영덕 (2005) 『애니메이션을 통한 영어교육의 효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서 (2003) 『영화와 영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김진화 (2010) 『영화 자막을 활용한 영어 학습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혁 (2006) 「국어과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모형 적용의 원리」, 『국어교육학 연구』 26: 199-225.

신진원, 박기성 (2015) 「영상번역교육을 위한 코퍼스 설계」, 『번역학연구』 16(3): 149-172.

안미영 (2012) 「TED 영상번역의 번역교육 활용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13(4): 133-158.

염문식, 강용구 (2007)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한 수업이 어휘력과 어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STEM Journal』 8(2): 55-82.

유영아 (2000) 「영상영어의 오늘과 내일 -시중 조사를 중심으로」, 『STEM Journal』 1: 97-126.

윤상돈, 안덕규 (2012) 「영화 자막 활용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알라딘, 인어공주, 라이온 킹 자막을 중심으로」, 『STEM Journal』 13(3): 73-87.

윤후남 (2010) 「영상번역과 공손성: <아메리칸 파이> 1, 2에 나타난 성적표현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8(1): 173-189.

이상빈 (2017)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 서울: Huine.

이지민 (2015) 「팬자막과 전통 영상번역은 과연 다른가?」, 『번역학연구』 16(2): 165-186.

최소영 (2012) 「친소도의 변화에 따른 일본어 스피치 레벨 시프트 및 한국어 영상번역에 관한 사례연구 -드라마 『ホタルノヒカリ』의 대사를 중심

- 으로」, 『일본어교육』 61: 85-100.
- 최진실, 박기성, 전지현 (2011) 「영어 산출 능력에 대한 영상번역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영어학』 11(2): 319-346.
- 현대덕 (2014) 「창의성 향상을 위한 과제중심 영어 수업 자료 개발」, 『현대영어교육』 15(4): 247-267.
- Calis, Eda and Kenan Dikilitas (2012) 'The Use of Translation in EFL Classes as L2 Learning Practic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46: 5079-5084.
- Carreres, Ángeles and María Noriega-Sánchez (2011)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Insights from Professional Translator Training', *The Language Learning Journal* 39(3): 281-297.
- Cho, Sung Eun (2014) 'Dubbing and Subtitling in Memories of Murder: Translating Korean Film into English', *STEM Journal* 15(2): 17-33.
- Díaz Cintas, Jorge and Pilar Orero (2003) 'Postgraduate Courses in Audiovisual Translation', *The Translator* 9(2): 371-388.
- Danan, Martine (2004) 'Captioning and Subtitling: Undervalu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Meta* 49(1): 67-77.
- Dorado, Carles and Pilar Orero (2008) 'Teaching Audiovisual Translation Online: A Partial Achievement', *Perspectives* 15(3): 191-202.
- Goldman, Milton E. (1993) *Using Captioned TV for Teaching Reading: FASTBACK 359*. Bloomington, IN: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Available at: <https://eric.ed.gov/?id=ED366935>
- Gottlieb, Henrik (1994) 'Subtitling: Diagonal Translation', *Perspectives* 2(1): 101-121.
- Kothari, Brij, Joe Takeda, Ashok Joshi and Avinash Pandey (2002) 'Same Language Subtitling: A Butterfly for Literacy?',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1(1): 55-66.
- Koolstra, Cees M. and Jonannes W. J. Beentjes (1999)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in a Foreign Language through Watching Subtitled Television Programs at Home'.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7: 51-60.
- Lertola, Jennifer (2012) 'The Effect of the Subtitling Task on Vocabulary Learning', in Anthony Pym and David Orrego-Carmona (eds) *Translation Research Project 4*, Tarragona: Intercultural Studies Group, Universitat Rovira i Virgili, 61-70.
- McLoughlin, Laura I. and Jennifer Lertola (2014) 'Audiovisual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tegrating Subtitling in the Foreign-Language Curriculum'.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1): 70-83.
- McLoughlin, Laura I. (2019) 'Audiovisual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in Luis Pérez-González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Audiovisual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483-494.
- Neves, Josélia. (2004) 'Language Awareness through Training in Subtitling', in Pilar Orero (ed) *Topics in Audiovisual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27-140.
- Perego, Elisa, Fabio Del Missier and Sara Bottiroli (2015) 'Dubbing versus Subtitling in Young and Older Adults: Cognitive and Evaluative Aspects', *Perspectives* 23(1): 1-21.
- Pérez-González, Luis (2007) 'Fansubbing Anime: Insights into the 'Butterfly Effect' of Globalisation on Audiovisual Translation', *Perspectives* 14(4): 260-277.
- Stibbard, Richard (1994) 'The Use of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Perspectives* 1: 9-18.
- Szarkowska, Agnieszka, Jagoda Żbikowska and Izabela Krejtz (2013) 'Subtitling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in Multilingual Film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10(3): 292-312.
- Vanderplank, Robert (1988) 'The Value of Teletext Subtitles in Language Learning', *ELT Journal* 42(4): 272-281.
- Willis, Dave and Jane Willis (2007) *Doing Task-base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How to Make Learning English Fun:
Integrating Subtitling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Classrooms in South Korea**

Choi, Jinsil
(Keimyung University)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in a foreign-language teaching field have reported the effects of using translation or audio-visual translation on foreign language learning. Subtitling has received a particular attention, of several ways of audio-visual translation, because it can offer more traditional translation tasks and help to raise learners' awareness of cultural issues, while enhancing learners' motivation. However, in South Korea, subtitling or audio-visual translation from a pedagogical perspective has been under-explored, while much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with respect to linguistic or multimodal aspects of audio-visual translation, netizen translation including subtitling, and differences between subtitling and dubbing. Against this backdrop, by introducing a South Korean case, this study discusses the use of subtitling in four English language learning classrooms and investigates 106 university students' feedback on their subtitling experience through the analyses of questionnaires, interviews, and course evaluation.

▶ Key Words: audio-visual translation, education, EFL, subtitling, questionnaire

▶ 주제어: 교육, 설문, 영상번역, 외국어로서의 영어, 자막

최진실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diane45@kmu.ac.kr

관심분야: 공공번역, 코퍼스 번역학, 개화기 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29일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8일